

추석 명절 가정예배 모범

(이 예배는 집안의 어른이 인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자녀 중에서 인도해도 됩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기 도 가 족 중

-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
- 올해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
- 앞으로도 주 안에서 가족들이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간구

성경봉독 시편 68:3-6 인 도 자

- 3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 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 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 6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말 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인 도 자

인도에서 의료선교를 하는 폴 브랜드 박사는 그의 환자 몇 명에게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일 때, 어떤 가족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오고, 밤에는 가족 중 한 명이 환자 침대 밑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통증으로 깨어날 때면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잠들 때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브랜드는 이것이 적합하지도 않고,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으로부터 정성껏 간호를 받은 환자들은 진통제를 적게 필요로 하며 매우 빨리 쾌유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으로(시119:105)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가정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둘째,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들 간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피로 맺어진 식구라 하더라도 각자의 생각은 다른 법입니다.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 들이고, 허물을 덮어주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린 후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끼리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성격을 이해하고 용납할 때 그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못 주고,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실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나누는 마음,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약 2:17).”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믿음으로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다 같 이

-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해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낚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